



"어서와♥해 달별은처음이지?"

해적 ☀[해] ☾[달] ☆[별] 실력가늠자✍_1701호



1701_[문법] + [제망매가] + [황조가] + [동짓달 지나긴 밤을]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마음의 고향 6] + [김천] + [동백꽃]



☀️) ☆1701호

[[]]

문법>

01_ 음운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 ① 음운은 의미를 변별해 주는 표기의 최소 단위이다. O/X
- ② 자음과 모음은 분절 음운에, 소리의 장단은 비분절 음운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O/X
- ③ 국어의 자음은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2가지 성질로 나뉘볼 수 있다. O/X
- ④ 반모음은 발음 과정에서 혀의 위치가 이동하는 것으로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O/X
- ⑤ 반모음은 자음과 모음의 양쪽 특징을 모두 지닌 개념으로 볼 수 있다. O/X
- ⑥ 음운 현상에서 동화와 교체 중 동화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O/X
- ⑦ 하나의 단어에서는 항상 한 가지의 음운 변동만 일어난다. O/X
- ⑧ 동일한 환경에서도 서로 다른 음운 변동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O/X
- ⑨ 연음화는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중 하나로 설명이 가능한 개념이다. O/X
- ⑩ 음운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음운 현상을 탐구할 때는 절대 입으로 소리내지 말고 항상 머리속으로만 계산해 접근해야 한다 이 자속들아. O/X

02_ 우리 문법에서의 품사를 생각나는 대로 그렇지만 가능하면 모두, 잘 적어 보세요.

⇒

03_ 형태소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 보세요.

-자립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 체계

⇒

-의미에 따른 분류 체계

⇒

04_ <보기>는 가상의 어느 일일드라마 대본이다. 괄호 안 지문을 바탕으로 우리 문장의 종류를 탐구하려 할 때, 적절하게 대응해 보세요.

보기

갑_(오늘 식사의 주메뉴가 무어냐는 질문에 답하며)
“호박고구마”

을_(오늘 식사의 주메뉴가 궁금한 상태에서)
“호박고구마”

병_(오늘 식사의 주메뉴는 이것 말고는 없다는 의미에서 강요하는 눈빛으로) “호박고구마”

정_(함께 먹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한 덩어리를 내밀며) “호박고구마”

무_(앞사람이 자꾸 화를 돌우는 상태에서)
“호박고구마”

⇒

05_ 단어의 짜임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어근의 개수에 따른 단어의 분류

⇒

-접사의 유무에 따른 단어의 분류

⇒

-접사의 위치에 따른 단어의 분류

⇒

06_ 다음에 제시된 개념과 '대응'되는 개념을 밝히고, 각각의 의미도 함께 밝혀 보세요.

-어미

⇒

-어근

⇒



07_<보기>의 단어를 잘 보고 아래 설명과 의미가 통하도록 배치해 보세요.

보기

선별選別 / 구별區別 / 구성構成 / 구분區分

- ①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 []
- ②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
- ③ 여러 개 중 일부를 뽑아서 따로 나눔 []
- ④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룸. []



문학 > 고전문문편 >

[가]

- 01 생사로(生死路)는 生死路隱(생사로은)
- 02 예 있으매 두렵고 此矣有阿米次 伊遣(차의유아미차힐이건)
- 03 '나는 간다' 말도 吾隱去內如辭叱都(오은거내여사질도)
- 04 못다 이르고 가느니고. 毛如云遣去內尼叱古(모여운견거내니질고)
- 05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於內秋察早隱風未(어내추찰조은풍미)
- 06 이에 저에 떨어질 앞같이,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차의피의부량락시염여)
- 07 한 가지에 나고 一等隱枝良出古(일등은지랑출고)
- 08 가는 곳 모르온저! 去奴隱處毛冬乎丁(거노은처모동호정)
- 09 아으, 미타찰(彌陀刹)에 만날 나는 阿也彌陀刹良逢乎吾(아야미타찰랑봉호오)
- 010 도(道) 닦아 기다리련다! 道修良待是古如(도수랑대시고여)
- 월명사 지음 양주동 해독, '제망매가'@17E특

[나]

- 01 훨훨 나는 꾀꼬리 翩翩黃鳥(편편황조)
- 02 암수 서로 정답구나 雌雄相依(자웅상의)
- 03 외롭구나 이내 몸은 念我之獨(염아지독)
- 04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誰其與歸(수기여귀)
- 유리왕, '황조가'@17E특

[다]

- 01 동지(冬至)ㅅ 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 02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러서리 너헛다가
- 03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뵤구뵤 퍼리라
- 황진이, '동지(冬至)ㅅ 들 기나긴 밤을'@17E특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가] ⇨
- [나] ⇨
- [다] ⇨

02_출제자의 [시어뵤니]

[가]

- ① '생사로'는 (□죽음의 / □삶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두렵고'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말도' '못다 이르고 가'는 것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가을'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바람'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앞'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한 가지'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가는 곳 모르온저'의 상황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미타찰'은 (□과거의 / □미래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도 닦'는 것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⑪ '꾀꼬리'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정다운' 모습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이내 몸'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누구'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다]

- ⑮ '동지'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⑯ '동지'는 (□긴 / □짧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⑰ '춘풍'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⑱ '어른 님'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 [바]르게

- ① 가는 나, 다와 달리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② 가, 다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③ 나, 다는 가와 달리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④ 다는 가, 나와 달리 추상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⑤ 가는 나, 다와 달리 화자의 감정을 작품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⑥ 가~다 모두 계절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⑦ 가~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O/X
- ⑧ 나는 가, 다와 달리 선경후정의 기법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⑨ 가~다 모두 대립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⑩ 가~다 모두 대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⑪ 가는 나, 다와 달리 미래지향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⑫ 나는 가, 다와 달리 대상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O/X
- ⑬ 가~다 모두 시상이 진행되며 화자가 교체되고 있다. O/X
- ⑭ 가~다 모두 정형적 음보를 바탕으로 한 율격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⑮ 가,나는 다와 달리 상승과 하강 등의 방향성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문학> 현대운문편>

[가]

- 01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02
- 03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 04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 05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 06
- 07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 08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 09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느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 10
- 11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 12 한 자옥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 13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 14
- 15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 16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 17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 18
- 19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 20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량이
- 21 젓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 22
- 23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 24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 25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 26
- 27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 28 살찐 젓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 29 밭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 30
- 31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 32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자
- 33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 34
- 35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 36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 37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펄나 보다.
- 38
- 39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17E특

[나]

- 01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 02 참새 떼 왈차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 03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 04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 05 토란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 06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 07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 08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 09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 10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 11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 12 서울로 가는 손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 13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 14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 15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 16 까닭 모를 굵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 17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 18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 19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 20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 21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초설@17E특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가] ⇨

[나] ⇨

02_출제자의 시어워니

[가]

- ① '지금'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남의 땅'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빼앗긴 들'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봄'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햇살'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맞붙은 곳'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논길'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꿈속'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하늘'과 '들'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내 맘'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바람'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종다리'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보리밭'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비'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⑮ '마른 눈'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⑯ '도량'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⑰ '노래'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⑱ '나비 제비'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⑲ '아주까리기름을바른 이'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⑳ '호미'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㉑ '흙'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㉒ '발목이 시도록'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㉓ '땀'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㉔ '아이'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㉕ '내 혼'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㉖ '우스웁다'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㉗ '풋내'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㉘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㉙ '다리를 저'는 것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㉚ '지금'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㉛ '고향'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㉜ '이제'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㉝ '대숲 마을'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㉞ '초가지붕'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㉟ '서울'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㊱ '들길'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㊲ '파라라한 웃고름'은 (□따뜻한 / □차가운)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㊳ '꿇은 눈물'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㊴ '신작로 길'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㊵ '수레바퀴 자국'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 [빠]르게 [바]르게

- ① 가는 대체로 유사한 형태의 연 배치로, 나는 유사한 형태의 문장으로 시적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 O/X
- ② 가와 나 모두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③ 나와 달리 가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④ 가와 나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⑤ 나와 달리 가는 화자의 정서 변화가 드러나 있다. O/X
- ⑥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O/X
- ⑦ 가와 나 모두 화자가 겪은 부정적 상황이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O/X
- ⑧ 가와 달리 나는 작품의 표면에 계절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O/X
- ⑨ 가와 나 모두 유사한 통사구조를 지닌 부분이 드러나 있다. O/X
- ⑩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정서가 작품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O/X

- ⑪ 나와 달리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⑫ 가와 나 모두 서술어를 생략한 형태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O/X
- ⑬ 가와 나 모두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⑭ 가와 달리 나는 시적 허용을 통해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O/X
- ⑮ 가와 나 모두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법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⑯ 가와 달리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⑰ 가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⑱ 가와 달리 나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⑲ 가는 나와 달리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⑳ 나와 달리 가는 작품의 시작과 끝이 연결되게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04_ 제시문과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문학 작품에서 '길'은 단순한 교통 수단의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는다. 문학 작품에서의 '길'은 '길'이 지닌 공간성, 표면의 거칠고 부드러움, 길에서 마주치는 풍경의 아름다움과 황폐함, 길이 지닌 방향성, 이상에 다다를 수 있는 수단 등의 다양한 특징을 통해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인생과 심리를 빗대어 드러내는 비유적 의미를 획득하여 작품에 드러나게 된다.

- ① 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길'을 통해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② 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길과 길에서 만난 대상들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③ 가의 길과 연결된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은 가의 길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이상으로 볼 수 있다. O/X
- ④ 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 까닭은 자신이 걷는 길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수 있다. O/X
- ⑤ 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이 걷는 길이 이상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O/X
- ⑥ 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와는 다른 방향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X
- ⑦ 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X
- ⑧ 나의 '길'은 실제의 '길'이라기 보다는 걷는 사람의 내면에 형상화된 '길'로 볼 수 있다. O/X
- ⑨ 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이 걷던 과거의 '길'과의 단절감을 경험하고 있다. O/X
- ⑩ 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받는 '짜락눈'은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문학> 고전소설편>

- 01 김천은 명주의 관리로, 어릴 때의 이름은 해장이다. 고종 말 몽골 군대가 고려를 침략했을 때 김천의 어머니와 아우 덕린이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 이때 김천은 열다섯 살이었는데, 밤낮으로 목 놓아 울다가 길에서 죽은 포로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는 삼년상을 치렀다.
- 02 14년이 흘렀다. 원나라에서 백호 벼슬의 습성이라는 사람이 와서 사흘 동안 시장에서 명주 사람을 수소문 하였다. 마침 강원도 정선 사람 김순이 이유를 묻자 습성이 말했다.
- 03 “동경*에 사는 김 씨 여인이 ‘저는 본래 명주 사람으로, 해장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네. 자네는 해장을 아는가?”
- 04 “내 친구요.”
- 05 김순은 편지를 받아서 김천에게 가져다주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06 나는 목숨을 건져 아무 고을 아무 동네 아무 집에 와서 종노릇을 하고 있단다.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추워도 입지 못하며, 낮에는 밭에서 김을 매고 밤에는 방아를 찧는다. 이렇게 온갖 고생을 다 겪는다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가 안단 말이나?
- 07 김천은 편지를 읽고 통곡했다.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목메어 울며 음식을 넘기지 못했다. 어머니의 몸 값을 치르러 가고 싶었지만 가난해서 돈이 없었다. 겨우 남의 돈을 빌려서 개경에 갔다. 어머니를 찾아 원나라에 가겠다고 하니 조정에서 허가해 주지 않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 08 충렬왕이 즉위하자 다시 원나라에 가기를 청했으나 조정의 방침은 전과 같았다. 오랫동안 개경에 머물며 무도 해지고 양식도 다 떨어졌다. 울적해하며 풀이 죽어 지내던 중 고향 사람인 승려 효연을 길에서 만났다. 김천이 울며 신세를 하소연하자 효연이 말했다.
- 09 “천호 벼슬을 하고 있는 나의 형 효지가 이번에 동경으로 가니 자네가 따라가는 게 좋겠네.”
- 10 김천은 즉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 11 어떤 이가 김천에게 말했다.
- 12 “자네가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지도 벌써 6년이나 되었는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지 어찌 알겠나? 또 불행히도 도중에 도적이라도 만난다면 목숨과 돈만 잃게 되는 게 아닐까?”
- 13 김천은 말했다.
- 14 “가서 어머니를 못 뵈면 못 뵈었지 어찌 내 목숨을 아끼단 말이지요?”
- 15 마침내 효지를 따라 동경에 들어가서 고려의 역어별장(譯語別將)* 공명과 함께 북방 지역의 천로라는 이가 관할하는 마을로 가서 어머니의 소재를 수소문하였다. 요좌라는 군졸의 집에 이르자 한 노파가 나와서 인사하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봉두난발(蓬頭亂髮)*에 얼굴에는 때가 새까맣게 끼어 있었다. 김천은 앞에서 보고도 그 노파가 자기 어머니인 줄 알지 못했다. 공명이 노파에게 말했다.
- 16 “너는 누구냐?”
- 17 “저는 본래 명주의 호장 김자룡의 딸로, 남매지간인 진사 김응문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저는 호장 김중연에게 시집가서 해장과 덕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덕린은 저와 함께 여기 온 지 벌써 19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서쪽 이웃의 천로 백호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국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

랐습니다.”

- 18 김천은 그 말을 듣자 엎드려 절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천의 어머니는 김천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 19 “네가 진짜 내 아들이냐? 나는 네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 20 이때 군졸 요좌가 집에 없어 김천은 어머니의 몸값을 치르지 못하고 혼자 동경으로 돌아와 별장 수룡의 집에 머물렀다. 한 달 뒤 김천이 수룡과 함께 요좌의 집에 다시 가서 몸값을 치르고 어머니를 모셔 가겠다고 했지만 요좌가 들어주지 않았다. 김천은 애걸하여 백금 55냥을 몸값으로 치른 뒤, 타고 온 말에 어머니를 태우고 자신은 걸어서 뒤를 따랐다. 덕린이 동경까지 전송하러 와서 울며 말했다.
- 21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지금은 비록 함께 갈 수 없지만 하늘이 복을 내리신다면 분명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 22 덕린의 말에 김천 모자는 울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 23 그때 중한 김방경이 원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경에 이르러 김천 모자를 보고는 칭찬하고 감탄해 마지 않았다. 김방경은 총관부에 말해서 두 사람을 역마에 태워 보내게 했다. 김천 모자가 명주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 김중연이 진부역까지 마중을 나왔다. 마침내 부부가 상봉하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김천이 술 한 잔을 올리고 물러나 통곡하자 좌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당시 김자룡은 79세 였는데, 딸을 보고 기쁨이 극에 달한 나머지 졸도하고 말았다.
- 24 6년 뒤 천로의 아들이 덕린을 데리고 오자 김천은 백금 86냥으로 덕린의 몸값을 치렀다. 몇 년 뒤에 김천은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아우 덕린과 함께 일생을 마칠 때까지 효도를 다했다.

-작자미상, '김천'@17E수특

*동경: 현재 중국의 요령성 요양시.

*역어별장: 통역과 무역을 담당하는 임시 벼슬.

*봉두난발: 머리털이 속대강이같이 헝수룩하게 마구 흐트러짐. 또는 그 머리털.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02_[빠]르게[바]르게

- ① 전기적 특성을 바탕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② 동시에 진행되는 두 사건이 번갈아가며 제시되고 있다. O/X
- ③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④ 유교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⑥ 헤어짐의 과정에서 인물들이 서로를 식별할 수 있도록 과거에 교환한 상징적 징표가 드러나 있다. O/X
- ⑦ 김천은 타지에서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삼년상을 치렀다. O/X
- ⑧ 김천은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O/X
- ⑨ 당시에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O/X
- ⑩ 김천은 어머니의 편지를 받자마자 어머니가 있는 공간으로 떠났다. O/X



- ⑪ 김천의 아우는 김천과 재회했으나 고국으로 함께 돌아오지는 못했다. O/X
- ⑫ 김천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 수 있었다. O/X
- ⑬ 김자룡은 딸의 귀환을 기다리다 끝내 딸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O/X
- ⑭ 김천과 부모의 상봉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적인 일이음을 알 수 있다. O/X
- ⑮ 김천이 겪은 개인적 사건은 역사적 사건의 결과로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X

03_ 제시문과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주인공의 고행苦行이 주요 서사 모티프인 '김천'은 조선 후기 발간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도 수록되어 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비교적 질서가 잘 유지되었던 조선 전기와는 달리 왜란 이후 동요하던 조선의 미풍양속과 충, 효, 열 등의 유교적 질서를 바로잡고 강화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편찬한 책으로,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뿐 아니라 국가와 백성의 관계도 바로잡고자 했던 당시 조정의 목적을 바탕으로 편찬된 일종의 목적 서적이었다.

- ① '김천'의 이야기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수록되었을 당시 조선의 유교적 질서는 흔들리고 있었을 것이다. O/X
- ② '김천'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지지와 의사를 바탕으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선택되어 실릴 수 있었을 것이다. O/X
- ③ '김천'의 이야기를 접한 독자들은 '효'의 관점에서 내용을 접하게 됐을 것이다. O/X
- ④ '김천'의 이야기를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실은 이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효' 뿐 아니라 '충'의 질서도 강화하고 싶었을 것이다. O/X
- ⑤ '김천'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조정은 조선 전기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했을 것이다. O/X



문학> 현대소설편>

[이전까지의 줄거리]

소작농의 아들인 '나'는 마름의 딸인 점순이가 호감을 담아 건넨 감자를 받지 않는다. 점순이의 마음을 계속 몰라주는 '나'에게 점순이는 고의로 자신의 닭과 '나'의 닭 사이에 싸움을 붙이며 '나'의 약을 올린다.

- 01 어쩌다 동리 어른이,
- 02 “너 얼른 시집가야지?”
- 03 하고 웃으면,
- 04 “염려 마세요. 갈 때 되면 어렵히 갈라구!”
- 05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려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꾸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싸리고 달아날지언정.
- 06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 07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누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 08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 09 눈물을 흘리고 간 닭날 저녁나절이었다. 나무를 한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레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방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애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 10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 11 요렇게 암팡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 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불기짜개를 주먹으로 쿡쿡 쥐어박는 것이다.
- 12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지계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 13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구 그러니?”
- 14 하고 소리를 뿅 질렀다.

15 <중략>

- 16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씹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 17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펑 쏟아졌다. 나무 지게도 벗어 놓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계막대기를 뺏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18 가까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격실격실히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갈이 꼭 여우 새끼 같다.

19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엎었다. 닭은 폭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 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흘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20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21 “그럼 어때?”

22 하고 일어나다가,

23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24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 김유정, 「동백꽃」 -@17E특

01_정리없이 정답없이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O/X
- ②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O/X
- ③ 향토적 소재들을 사용하여 특정 공간에 대해 중심 인물이 지닌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O/X
- ④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O/X
- ⑤ 사건이 진행되며 서술자가 교체되어 중심 사건의 의미를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O/X
- ⑥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O/X
- ⑦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형성과 해소 과정이 드러나 있다. O/X
- ⑧ 다른 인물에 대한 중심 인물의 인식 변화 과정이 드러나 있다. O/X
- ⑨ 주인공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주인공은 행동에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O/X
- ⑩ 인물과 인물 사이의 상황 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다. O/X



03_제시문과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김유정의 '동백꽃'은 개개인의 다양한 욕망이 교차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욕망의 유형으로는 타인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 타인에게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욕망, 타인에게서 소중한 것을 침해 받은 것에 대한 복수의 욕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욕망들은 주인공들 사이를 오가며 서사를 전개하는 밑바탕이 된다. 한편,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인물은 내적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억지스런 악행이 드러나기도 하고, 주인공의 내면에 축적된 내적 갈등이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 ① '나'는 '점순이'와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 인물로 볼 수 있다. O/X
- ② '내'가 ㉠의 상황을 염려하는 것은, 사회적 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O/X
- ③ '점순이'는 '나'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 있다. O/X
- ④ '나'는 '점순이'와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보다 '타인에게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⑤ '점순이'가 우리집 닭을 괴롭히는 것은 '소중한 것을 침해받은 것에 대한 복수의 욕망'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⑥ '점순이'의 악행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⑦ ㉠은 '점순이'의 주도로, ㉡은 '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O/X
- ⑧ '나'는 ㉠과 ㉡의 상황 모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O/X
- ⑨ '나'가 '점순이'의 닭을 때려죽인...것은 축적된 내적 갈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O/X
- ⑩ 작품이 진행되며 욕망이 교차되면서 '나'와 '점순이'의 관계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O/X



답_☀️)☆1701호

문법>

- 01_ X-소리 / O / X / O / O
X / X / O / X / X
- 02_ 차례와 상관 없이 명사 / 대명사 / 수사 / 관형사 / 부사 / 동사 / 형용사 / 조사 / 감탄사
- 03_ [자립-의존 형태소]
[실질(어휘)-형식(문법) 형태소]
- 04_ 순서대로 평서 / 의문 / 명령 / 청유 / 감탄
- 05_ [개수_어근1개-단일어, 파생어 / 어근2개이상-합성어]
[유무_접사없음-단일어 & 합성어, 접사 있음-파생어]
[위치_앞-접두파생어, 뒤-접미파생어]
- 06_ [어미-어간][어미는 용언을 활용할 때 바꾸어 쓰는 부분이고 어간은 바뀌지 않는 부분]
[어근-접사][어근_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지니며 자립할 수 있는 부분, 접사_자립성 없이 어근에 붙어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강조하는 부분]
- 07_ 차례대로 구별 / 구분 / 선별 / 구성

문학> 고전문문편>

- 01_ [가] #이별(사별) #재회 #불도
[나] #나, 외로움 #피꼬리, 즐거움
[다] #임 #그리움 #기대
- 02_ [가]죽 / 안 / 안 / 안 / 안
안 / 관 / 안 / 미 / 관
[나]관 / 관 / 안 / 관
[다]관 / 긴 / 관 / 관
- 03_ O / X / O / O / X
X / X / O / O / O
X(나도포함) / X / X / X / O

문학> 현대문문편>

- 01_ [가]#봄 #기쁨 #답답함 #빼앗긴 들
[나]#고향 #없어짐
- 02_ [가]_안 / 안 / 안 / 관 / 관
관 / 관 / 관 / 안 / 안
관 / 관 / 관 / 관 / 안
관 / 관 / 안&관(기뻐서깁치는거라면 관) / 관 / 관
관 / 관 / 관 / 안 / 안
안 / 둘다 / 둘다 / 안 / 안
[나]_관 / 안 / 관 / 관 / 안
안 / 차 / 관 / 안 / 관
- 03_ O / X / O / O / O
X / O / X / O / X
O / X / O / O / X
O / O / X / O / O
- 04_ O / O / O / O / X
O / X / O / O / X

문학> 고전소설편>

- 01_ #김천, 효심
- 02_ X / X / X / O / O
X / X-죽은포로가많다고들은것일뿐
어머니소식아님 / O / O / X
O / X / X / O / O
- 03_ O / X / O / O / X

문학> 현대소설편>

- 01_ #소년, 소녀 #폭력 #(일방적)호감 # 사회적위차차이
- 02_ X / X / X / X / X
X / X / O / O / O
- 03_ X / O / X / O / X
O / O / O / O / X